

#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과 이해 : 교회를 향한 그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조운호

(그리심교회 담임목사, 조직신학)

## 〈한글초록〉

속사도였던 이그나티우스에게는 신학적으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최초라는 단어가 붙여진다. 그는 교부들 가운데 최초로 ‘일치’와 ‘연합’, ‘보편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관용구를 사용한 최초의 교부다. 그리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최초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신학자다.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해석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것은 두 가지에 있어서 유익함을 준다. 첫 번째는 그 시대와 상황을 알게 한다. 두 번째는 그 시대의 신앙과 신학의 중심을 알게 한다. 특히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들여다보면 그의 서신이 가지는 형식과 내용의 특징이 발견된다. 형식에 있어서는 사도서를 따르고 있으며, 내용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것을 ‘은유적 방법’과 ‘적용의 방법’ 그리고 ‘교리적 접근’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투고일: 2022.03.05 수정투고일: 2022.05.04 게재확정일: 2022.05.05

교회를 ‘분파’ 가운데 빠뜨렸던 이단들은 제자들의 ‘어록들’을 제시하며 거짓된 교리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진리를 사수하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사도들의 전통에 호소한다. 사도들의 전통이 교회의 정통으로 세워진다. 이때 관용구를 사용한 ‘교차적 참조’ 방식이 변증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고린도전서를 비롯한 사도서를 중심으로 한 그의 서신들은 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갈등과 위기에서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을 해석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그의 신앙과 신학을 더욱 깊이 있게 조명해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현대 교회를 향해 세 가지 유익함을 준다. 첫 번째는 분파주의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별력을 가지도록 한다. 두 번째는 진리를 직시하는 신앙관을 가지게 한다. 세 번째는 사도들의 전통을 통해 교리적 이해를 돕게 한다.

**주제어** : 그리스도, 십자가, 은유, 적용, 해석학적, 이그나티우스

## I. 들어가면서: 해석학적 접근에 따른 이해와 일곱 서신의 특징 그리고 연구 방향

성경에 대한 최초의 해석자는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에 등장한다.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할 때 군중들 속에서 그를 도와 성경을 해석해주었던 레위인들이라 말할 수 있다. 이후 유대인들의 성경해석은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중심이 되어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속에 행해진다. 여기에 중심은 유대인의 존재에 대한 가치관과 정체성이었다. 이것을 종교적 측면에서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을 전제로 해석이 작용(作用)하게 된다. 특히 이방인과 구별되는 일종의 ‘선민사상’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해석에 대한 방향이 주어진다. 이것이 사도 시대로 넘어오면서 구약을 근본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과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새 시대’의 관점에 비추어 해석하게 된다.<sup>1</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반적으로 고대 종교와 관련된 연구는 종종 문자에 대한 해석 또는 다른 분야에서 가져온 모델과 연계하여 진행되어왔다는 점이다.<sup>2</sup> 특히 용어에 대한 해석은 그 시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사도 시대는 해석에 있어서 분수령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주요 관점은 종전의 ‘유대인의 해석 방향’에서 ‘그리스도인의 해석’으로 전환이었다.<sup>3</sup> 3세기 초, 성경 해석은 교리문답 방식을 이끌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향을 받는다.<sup>4</sup> 그 이전, 사도 시대를 이어가던 2세기의 속사도 교부들의 시대는 성경해석에 대한 기초단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점들을 면밀(綿密)히 검토하면서 사도 시대와 연결되는 속사도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기록한 일곱 서신을 살펴보면 두 가지 점이 목격된다. 첫 번째는 그 시대의 성경해석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는 서신의 본문 분석을 통해 일곱 서신은 어떤 유형의 해석학적 접근을 꾀하고 있었는지 알게 한다.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은 성경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비춰낸다. 복음서와 사도서, 그리고 예언서다. 그 가운데 일곱 서신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단연코 사도서다.<sup>5</sup> 사도들의 직접적인 영향 가운데 있었던 이그나티우스의

<sup>1</sup> William W. Klein, Craig L. Blomberg, Robert L. Hubbard Jr,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allas: Word Publishing, 1993), 28-29.

<sup>2</sup> David Engels and Peter Van Nuffelen, “Religion and Competition in Antiquity,” in *Collection Latomus* 343 (2014): 9.

<sup>3</sup> Klein, Blomberg, Hubbard Jr,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28.

<sup>4</sup> Louis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Michigan: Baker Book House, 1969), 19.

<sup>5</sup> Ignatius, “To the Rom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4:3, 104;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Michigan:

서신은 특히 바울의 양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sup>6</sup> 그리고 그의 일곱 서신에서 다뤄지는 본문의 곳곳에는 사도서와 관련된 본문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신이 고린도전서다. 본문과 관련하여 「에베소 인들에게」서 3회, 「마그네시아 인들에게」서 2회, 「트라테스 인들에게」서 4회, 「로마 인들에게」서 4회, 「빌라델피아 인들에게」서 4회, 「서머나 인들에게」서 2회, 총 19회 정도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서신의 내용에 담겨 있는 상황적인 요소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고린도전서의 유형을 많이 떠 오르게 한다. 「폴리잡에게」 보낸 서신 또한 이런 유형 가운데 놓여 있다.

고린도전서를 제외하고 일곱 서신에는 디모데전·후서가 8회, 로마서가 7회 정도 나타난다. 그 외에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 등이 등장한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연상하는 본문들뿐만 아니라 예언서에 있어서는 이사야의 내용도 증거되고 있다.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은 이런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몸 안에서 위안을 얻듯이 ‘복음서’와 교회의 장로회에서 위안을 얻듯이 ‘사도서’에서 위안을 얻으며, 제가 자비롭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서 또한 사모합니다.”<sup>7</sup> 속사도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서신에서 구약

Inter-Varsity Press, 2016), 67: “Some of the very early writers distinguished themselves quite clearly from the apostles and their writings from the writings of the apostles.”

<sup>6</sup> Henri de Lubac, *La mystique et l'anthropologie dans le christianisme*, 박진상 역, 『그리스도교 신비사상과 인간』(화성사: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6), 116; James Orr,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 (Chicago: The Howard-Severance, 1915), 563: “Just when and to what extent “collections” of our NT books began to be made it is impossible to say, but it is fair to infer that a collection of the Pauline epistles existed at the time Polycarp wrote to the Phil and when Ignatius wrote his seven letters to the churches of Asia Minor, i.e. about 115 AD. There is good reason to think also that the four Gospels were brought together in some places as early as this.”

<sup>7</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5:1-2, 109.

성경보다 신약성경을 더 많이 인용한 것은 시대적 상황과 사건의 내러티브(narrative)와 카이로스(καιρός)가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8</sup>

이그나티우스가 교회를 향해 증거할 때, 서신의 내용 가운데 고린도전서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C. 리차드슨(Cyril C. Richardson, 1909-1976) 또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sup>9</sup>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해석학적 요소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메타포 방식’의 해석학적 접근이다. 여기에는 갈등을 이겨내는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 두 번째는 ‘적용 방식’의 해석학적 접근이다.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이루고 있다. 세 번째는 ‘교리를 통한’ 해석학적 접근이다. 교회를 지켜내는데 있어서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다.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이며, 문법적, 문맥적 방법만으로는 그 깊이와 넓이를 전부 표현해낼 수 없다. 때로는 상징적 요소가 가미되고, 비유적이며, 수사적이고, 적용 등에 관한 것이 주어져야 한다.<sup>10</sup>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해석학적 접근을 이루며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 그는 진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진리의 바른 전달과 가르침을 위해 그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함께 연구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해석적인 접근을 통해 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는지 밝히면서 이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를 통해 이그나티우스

<sup>8</sup> Craig G. Bartholomew, *Introducing Biblical Hermeneutic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Hearing God in Scripture* (Michigan: Baker Academic, 2015), 261-262.

<sup>9</sup> Cyril C. Richardson, “The Letters of Ignatius, Bishop of Antioch,” in *Early Christian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78.

<sup>10</sup> Anthony C. Thiselton, *The Two Horizons*, 박태규 역, 『두 지평: 성경해석과 철학적 해석학』 (서울: 한국기독교학술회출판부, 2017), 39-40; 백충현, “다(多)문화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삼위일체적 다(多)문화적 신학적 인간론의 모색,” 『한국개혁신학』 64 (2019): 241.

의 일곱 서신이 더욱 신학적으로 조명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한다.

## II. 갈등을 극복하게 만드는 메타포(Metaphor) 방식의 접근

### 1. 참된 존재와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는 두 대칭 구도

갈등은 지속된 가치의 기준과 관점의 차이 또는 사회와 문화적 차이에  
서 일어나는 경향이 짙다.<sup>11</sup> 그런가 하면 종교의 교리적 차이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 갈등의 시대를 그려내고 있는 이그나티우스는 최초로  
관용구(慣用語)의 표현 양식을 사용한 속사도 교부였다.<sup>12</sup> 그는 「에베  
소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갈등에 따른 두 대상을 비유한다.  
하나는 교회 가운데 분파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들이다. ‘야수’에 비유한  
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단들이 ‘가현살’을 앞세워 조롱하고, 부인하  
고 있는 ‘십자가의 신앙’ 아래 놓여 있는 자를 가리켜 ‘기증기에 의해  
들려지는 자’로 비유하고 있다.<sup>13</sup>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을 통해 십자가의 참된 존재와 가치관을 ‘능력’과 ‘약함’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두 대칭 구도를 통해 설명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헛된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조명하니

<sup>11</sup> Pieter J. J. Botha, “Blindness in early Christianity: Tracking the fundamentals of religious conflict,” in *Reconceiving Religious Conflict*, ed. Wendy Mayer and Chris L. de Wet (Routledge: New York, 2018), 45.

<sup>12</sup> Thomas G. Weinandy, *Athanasius: A Theological Introduction*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8), 87. 각주 16을 인용: “Ignatius of Antioch(d. circa AD 107) was one of the first to employ the Communication of Idioms and he did so precisely to highlight the reality of the Incarnation. The one who is impassible as God is the same one who is passible as man. See, for example, his *Ad Eph.* 7.2.”

<sup>13</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7:1; 9:1, 89-90.

약함과 대조되는 능력이라기보다 어리석음과 대조되는 지혜를 말하고 있다. 앤서니 C. 티슬턴(Anthony C. Thiselton, 1937-현재)은 『고린도 전서: 해석학적 & 목회적으로 바라본 실용적 주석』에서 여기에 대해 말한 바 있다.<sup>14</sup>

이그나티우스는 이단의 치명적인 악영향이 가져오는 극단적 모습을 은유적으로 나타낼 때 ‘은밀히 물어뜯는 광견에 물림’으로 표현한다. 이들에게 속임을 당하여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치명상을 입게 된다. 반면 ‘십자가의 신앙’ 아래 놓여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믿음이 더해지며, 하나님께로 높이 올려지게 된다. 이때 성령의 역할은 ‘빛줄’로서 성도들이 그릇된 신앙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동여매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sup>15</sup> 여기서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한다.<sup>16</sup> 이그나티우스의 권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내의 극단적 종말론 주의자들에 의해 교회가 혼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바울이 이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권면했던 모습을 상기시킨다.

이그나티우스는 영적으로 갈등의 구조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견인한다. 이때 그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방식으로 반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비유에 따른 두 대칭 구도를 통해 상대로 하여금 쉽게 인지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요아킴 예레미아스(Joachim Jeremias, 1900-1979)에 의하면 비유는 “전통이 낳은 원칙적인 기반의 한 단편이다.”<sup>17</sup> 비유는 사건 또는 그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전달함에 있어서 일반적 적용을

<sup>14</sup> Anthony C. Thiselton, *First Corinthians: A Shorter Exegetical and Pastoral Commentary*, 권연경 역, 『고린도전서』 (서울: SFC, 2011), 84-89.

<sup>15</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9:1, 90.

<sup>16</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0:1, 91.

<sup>17</sup> Joachim Jeremias, *The Parables of Jesus*, 허혁 역, 『예수의 비유』 (왜관: 분도출판사, 1974),

뛰어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티슬턴은 자신의 저서 『성경해석학 개론』에서 성경해석과 관련해 은유로서의 비유에 대해 두 가지를 설명한다. 하나는 예수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믿는 ‘직유로서의 비유(parable as simile)’다. 또 다른 하나는 ‘초대교회의 성경 편집 과정의 산물’로 보는 ‘은유로서의 비유(parable as metaphor)’다.<sup>18</sup> 그는 아돌프 율리히(Adolf Jülicher, 1857-1938)의 견해를 빌려 이를 증거한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은유적인 것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놓인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들을 펼쳐 나가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초대교회의 속사도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주님의 가르침을 ‘부패하지 않는 향기’로, 이단들의 가르침을 ‘불결한 냄새’라는 ‘두 향기’로 비유하고 있다.<sup>19</sup> 그는 은유적인 두 비유를 통해 교회의 참된 영적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다.

주님께서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붓게 하신 것은 부패하지 않는 향기를 교회에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세상 임금의 가르침의 불결한 냄새를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지 마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여러분 앞에 놓인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하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의식을 되찾읍시다. 왜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무시함으로써 어리석게 멸망해야 합니까?(Ep. 17:1-2)<sup>20</sup>

이그나티우스가 기록한 두 번째 편지인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sup>18</sup> Anthony C. Thiselton,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김동규 역, 『성경해석학 개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80.

<sup>19</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7:1, 92; Andrew Louth,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1*, ed., Thomas C. Oden (Illinois: IVP, 2001), 2, 4: “Our faith is grounded in the teachings of the Lord”

<sup>20</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7:1-2, 92.

서신에 의하면 세상에는 두 분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죽음’과 관계되고, 하나는 ‘삶’과 관계된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동전이 가지는 양면의 모습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신앙인’으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것에 속한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인(the stamp of God the Father)’을 지닌 것으로 비유한다. 다른 하나는 ‘불신앙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세상의 인(stamp)’으로 살아가는 존재다.<sup>21</sup> 이 두 분류의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신앙인’이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갈등 가운데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통해 위로 받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초대교회 당시 최초의 이단이었던 에비온주의는 유대주의를 앞세운 구원론을 가르쳤다. 이그나티우스는 드로아에서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유대주의를 앞세운 이단들을 가리켜 ‘가면을 쓴 이리들’, ‘나쁜 목초지’에 비유한다.<sup>22</sup> 그런가 하면 드로아에 앞서서 서머나에서 기록한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10장에서는 이들의 가르침을 ‘오래되고, 신맛을 나게 하는 상한 누룩’에 비유한다. 그러나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율법적 가르침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은 ‘새로운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다.<sup>23</sup> 이를 통해 유대교와 기독교는 유사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별개라는 것을 은유적 표현의 두 대칭 구도를 통해 분명히 한다.<sup>24</sup>

그런가 하면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6장에서는 또 다른 이단이었던 ‘가현설’을 이끄는 자들을 음식에 비유한다. 이들은

<sup>21</sup> Ignatius, “To the Magnesians,” 5:2, 95.

<sup>22</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2:2; 3:1, 108.

<sup>23</sup> Ignatius, “To the Magnesians,” 10:1-3, 96-97.

<sup>24</sup> F.J. Elizabeth Boddens Hosang, “Attraction and Hatred. Relations between Jews and Christians in the Early Church,” in *Violence in Ancient Christianity*, ed. Albert C. Geljon and Riemer Roukema (Brill: Leiden, 2014), 90-94; Philip F. Esler, ed. *The Early Christian World I-II* (New York: Routledge, 2002), 168-169.

‘그리스도인의 양식’이 아닌 ‘다른 음식’에 비유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가르침을 뒤섞은 것으로 교회를 갈등에 빠뜨린다. 맛으로 볼 때는 ‘꿀’과 같고 ‘포도주’와 같다. 그러나 이것을 삼켰을 때는 ‘맹독’으로 파멸에 따른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이그나티우스는 두 대칭 구도에 따른 은유적 표현을 빌려 경고한다.<sup>25</sup>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 1873-1957)는 『성경해석의 원리』를 통해 이런 말을 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은유같은 수사법들을 사용할 때 어떤 특정한 일치점을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sup>26</sup> 이그나티우스가 이단에 대한 것을 은유적 접근법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은 두 대칭 구도를 통해 확실한 것을 구별 짓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두 대칭 구도를 사용함으로써 이단이 어떤 해를 끼치는지 인지하기 쉽게 한다. 자신이 이단을 특별히 경계하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떤 감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신앙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 “나의 마음의 근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sup>27</sup>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 2.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그려내는 메타포

웬디 마이어(Wendy Mayer, 1960-현재)에 의하면 종교 문제로 일어나는 갈등은 종교적 관용에 따른 문제와 그 종교의 본질적인 문제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발생한다.<sup>28</sup> 하나님에 관한 유일사상과 구원에

<sup>25</sup> Ignatius, “To the Trallians,” 6:1-2, 100.

<sup>26</sup>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86.

<sup>27</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8:2, 110.

<sup>28</sup> Wendy Mayer “Re-Theorizing Religious Conflict: Early Christianity to late antiquity and beyond,” in *Reconciling Religious Conflict*, ed. Wendy Mayer and Chris L. de Wet (Routledge: New York, 2018), 3-6.

따른 이그나티우스의 신앙은 에비온주의와 영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황제숭배 사상 가운데 놓인 로마의 사상과 충돌한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킨다. 그렇지만 그의 신앙은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의 확고함은 로마의 순교 현장으로 압송당하는 그 순간도 흔들림이 없었다.<sup>29</sup> 십자가를 의미하는 순교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sup>30</sup> “나는 나의 생명을 십자가를 위해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로 여겨지지만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sup>31</sup> 그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9장에서 십자가를 ‘기증기’에 비유한다. 이런 십자가는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가치관 위에 서게 하는 길’이었다.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십자가는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관이었다.<sup>32</sup> 십자가가 중심에 세워지고 좌우에 펼쳐지는 죽으심과 부활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펼쳐지는 갈등의 구조를 이겨내게 한다. 그는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단들의 가르침과 십자가를 두 가지의 비유로 표현하며 가치를 구별한다. 전자가 열매의 맛을 보는 자를 죽사시키는 ‘치명적인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말한다면 후자는 ‘죽지 않는 열매’를 맺는 생명의 가지다.<sup>33</sup> 그는 십자가를 생명과 관련한 은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참된 길로 비유된다.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9장에서

<sup>29</sup> Angelo Di Berardino · Thomas C. Oden · Joel C. Elowsky · James Hoover, ed. *Encyclopedia of Ancient Christianity: Produced by the Institutum Patristicum Augustinianum*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14), 1:30.

<sup>30</sup>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1: Apostolic Christianity. A.D. 1-100*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9), 251; James Orr,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IV* (Chicago: The Howard-Severance, 1915), 2371.

<sup>31</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8:1, 92.

<sup>32</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8:1, 92.

<sup>33</sup> Ignatius, “To the Trallians,” 11:1-2, 100-101.

자신의 ‘마음에 원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신앙의 보관소’는 십자가였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고 고백한다.<sup>34</sup> 순교 현장을 향하고 있는 이그나티우스에게 비치는 십자가는 갈등에 사로잡힌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신앙의 보관소’였다. 그리고 부활을 그려내는 ‘죽지 않는 열매’였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이룬 장소였다. 고난과 생명의 드러짐이 필연적으로 나타난 장소였다. 이런 십자가가 이그나티우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는 증거물이었다. 그에게 십자가 신앙이 없었다면 로마로 압송당하는 과정과 로마에서 기다려지는 순교의 현장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sup>35</sup>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곳곳에 등장하는 순교에 대한 그의 담대함은 육신과 정신적 용기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관에서 이뤄졌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낸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 압니다. 지금이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이여, 십자가여, 야수들과 싸우는 것이여, 뼈들을 비트는 것이여, 사지를 찢어지게 하는 것이여, 온몸을 부스리트리는 것이여, 악마의 잔인한 고문들이여, 오직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게 하소서!(*Rom*, 5:3)<sup>36</sup>

이그나티우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십자가를 은유적 방식으로 표현한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신앙과 관련한 부분이다. 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sup>34</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8:2, 110.

<sup>35</sup> Paul J. Donahue, “Jewish Christianity in the Letters of Ignatius of Antioch,” *Vigiliae Christianae* 32 (1978): 82.

<sup>36</sup> Ignatius, “To the Romans,” 5:3, 105.

십자가는 자신의 내면적, 외면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효력을 발한다. 두 번째는 영원한 성찬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이단과 신앙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는 구별점이 된다.<sup>37</sup> 교부들은 성찬을 통해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고 있었다.<sup>38</sup> 이와 같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되살린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찬을 가리켜 ‘새 언약’(눅 22:20)이라 말씀하셨고, 성찬을 통해 자신을 기념하도록 하셨다.(고전 11:25) 이그나티우스는 은유적 방식의 표현을 빌려 성찬의 의미 속에서 십자가를 재발견하도록 하였으며,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열매를 잊지 않도록 한다.

그들은 성찬식과 기도의 예배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께서 그의 선하심 가운데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문체 삼고 논쟁하는 자들은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Smy*, 7:1)<sup>39</sup>

### 3. 분파주의자들로부터 구별되는 참된 연합을 이끌어내는 메타포

가현설을 주장하며, 추상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을 앞세운 영지주의 이단<sup>40</sup>과 같은 분파주의자들에 대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최초로 표현해낸다. 이때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

<sup>37</sup> Philip Schaf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II* (Michigan: William B. Eerdmans, 1956), 62; 조윤호,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0 (2021): 135.

<sup>38</sup> Brant Pitre, *Jesus and the Jewish Roots of the Eucharist: Unlocking the Secrets of the Last Supper* (New York: Brant Pitre, 2011). 149-152.

<sup>39</sup> Ignatius, “To the Smyrnaeans,” 7:1, 114.

<sup>40</sup> Gillian R. Evans · Alister E. McGrath · Allan D. Galloway, *The Science of Theology: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서영일, 『기독교 사상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28.

게」 보낸 서신 제5장에서 ‘빵(떡)’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누구든지 성전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빵이 결핍되어 있습니다”<sup>41</sup> 이런 그의 은유적 표현은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를 연상시킨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거하나니”(요 6:56)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요 6:58)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서에 능통했던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예배를 거부하며, 교회의 감독에게 반항하는 분파주의자들을 진심으로 피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빌려 은유적 표현으로 접근한다.<sup>42</sup> 여기서 분파주의를 일삼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빵’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참된 연합은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연합을 이룰 때도 연합이 대속을 이루지 못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그 연합을 이룬 자에게는 생명의 영원함이 없다. 분파주의자들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였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육체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영적인 자들이 육체에 속한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sup>43</sup>라며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은유적 방식을 통해 ‘연합’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연합(union)’이라는 단어를 서신을 통해 최초로 사용한 교부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에베소 인들에게」서 3회, 「마그네시아 인들에게」서 3회, 「트랄레스 인들에게」서 2회 이 단어를 직접 사용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union with Christ Jesus)’을 ‘부활’과 ‘영생’의 참된 진리 가운데로 연결하고 있다.<sup>44</sup> 이그나티우스

<sup>41</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5:2, 89.

<sup>42</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5:2-6:2, 89.

<sup>43</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8:2, 90.

는 ‘연합’을 통해 단순한 연대와 결속력을 다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가 되는 ‘동일한 성질’과 ‘동일한 값’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적이고, 외경에 따른 가르침을 ‘잘못된 의견’, ‘아무 가치가 없는 오래된 이야기들’이라며 그 말의 장난에 미혹 당하지 말도록 한다.<sup>45</sup>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는 곧 ‘영생’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그나티우스는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은유적으로 밝히고 있다.<sup>46</sup>

### III.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적용(Application)의 관점

#### 1. 진리의 근본을 일깨우는 디다케(διδάχῃ)

사도 시대의 성경해석은 구약을 기독론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리고 속사도 교부 시대에는 두 유형의 성경해석이 등장하게 된다. ‘가르치는(διδάχῃ)’방식의 성경해석과 ‘선포하는(κῆρυγμα)’ 방식의 성경해석이다. 이때 플라톤 철학을 조화시킨 알레고리(allegory)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sup>47</sup> 특히 사도들은 성경해석을 원리(Principle)와 적용(Application)의 방식을 주로 취하였다. 이런 방식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교회 사역에 대해 변론할 때 종종 사용되곤 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방식을 즐겨 사용했으며, 디모데전서에 뚜렷하게 그 모습이 나타난다. 이때 사용되는 성경해석은 ‘디다케’와 ‘케리그

<sup>44</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2:2; 20:2, 91, 93; “To the Magnesians,” 1:2; 5:1, 94, 94; “To the Trallians,” 2:2, 98, 99.

<sup>45</sup> Ignatius, “To the Magnesians,” 8:1, 96.

<sup>46</sup> Ignatius, “To the Trallians,” 2:1-2, 98-99.

<sup>47</sup> Klein, Blomberg, Hubbard Jr,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32.

마'가 가미된 해석이었다.

속사도 교부들이 있던 때는 교회 내적으로 가르쳐야 할 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존재했다. 이런 연유로 이들의 해석은 위의 두 유형의 모습을 담게 된다. 특히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은 목회 서신의 성격을 가진다. 전체 내용은 '디다케'의 요소를 더 많이 가미하였으며 신앙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왜냐하면 신앙은 배운 것의 결실인 열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바알세불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마 12:33) 신앙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칼빈(John Calvin, 1509-1564)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의 계시의 원천’이다. 이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불변하며,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한다.<sup>48</sup>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룬다. 이때 일치와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된다.<sup>49</sup> 그러나 이단 사상을 앞세운 가현설 주의자들은 교회 내에 분파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마태복음 12장 33절의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라는 말씀을 인용한다. 그가 어떤 사상과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인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진리의 근본을 일깨워주고 있다.<sup>50</sup> 진리의 근본은 변함없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는 우리의 대속을 이룬 예수

<sup>48</sup>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1.13.7, 130.

<sup>49</sup> J. N. D. Kelly, *The Early Christian Doctrines*, 박희석 역, 『고대 기독교교리사』 (교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49.

<sup>50</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4:2, 92.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가현설주의자들을 비롯한 이단 학설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를 상기시키면서 진리의 근본을 일깨운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sup>51</sup> 이그나티우스는 은유적 방식으로 진리의 근본을 일깨울 때도 말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적용 방식의 디다케를 사용하였다.

## 2. 믿음과 확신의 신앙으로 견인하는 적용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의 분파를 이끄는 이단들의 세력을 사나운 짐승 등에 비유한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동요 당하지 않도록 신앙을 견인해낸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참고, 벰전 5:8) 그는 “믿음에 굳건히 서십시오”라며 골로새서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다.<sup>52</sup> 그리고 불신앙을 이끌며 교회의 분파를 초래하는 자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 마귀에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성마른 기질’을 ‘관대함’으로, ‘학대’를 ‘기도’로, ‘난폭함’을 ‘온순함’으로 신앙의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나가도록 적용한다. 상대를 대적하는 방식이 육신을 도모하는 자들과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자의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이같이 하면 사탄의 어떤 방해적 요소도 여러분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sup>53</sup> 로마서 21장 21절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도록 한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비교될 만한 상황을 적용하여 신앙의 바른 모습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신앙을 돌아볼 때 맹목적이거나 우상숭배 방식

<sup>51</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6:1-2, 92.

<sup>52</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0:2, 91.

<sup>53</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0:3, 91.

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을 견인해내는 적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신앙의 유비(Analogia Fidei)’는 성경에서 참된 의미를 찾아야 하며, 성경을 통해 그 길을 제시하는 해석이 되어야 한다.<sup>54</sup>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14장에 따르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신앙’에 대한 적용점은 두 가지와 연결된다. 첫 번째는 신앙의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끝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킨다.<sup>55</sup>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따로가 아니라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을 소유하는 신앙’을 얻게 된다고 적용점을 제시한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이 중 어느 것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시작이며, 끝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연합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참된 선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둘에 의존하게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죄에 빠지지 않으며, 사랑하기를 배운

<sup>54</sup> Joel R. Beeke and Mark Jones, *A Puritan Theology*, 김귀탁 역,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52.

<sup>55</sup> Benjamin B. Warfield, *Biblical Doctrines* (Wiltshire: Banner of Truth Trust, 2002), 524: “There is a famous passage in Ignatius’ letter to the Romans in which he gives, or has been misunderstood to give, Christ Himself the name of “ἜΡΩΣ: “My Love has been crucified,” he says. We need not go into the vexed question of the real meaning which Ignatius intends to convey by this phrase. It affords as striking evidence that ἔρωσ was not felt to be an intrinsically base term, that such a phrase should have been facilely misunderstood by Christian writers as referring to Christ, as that it should have been actually applied to Him by Ignatius.”; James Orr,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II* (Chicago: The Howard-Severance, 1915), 1242-1243; James Orr,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III* (Chicago: The Howard-Severance, 1915), 1713: “To the Gnostic, knowledge was the sum of attainment. “They give no heed to love,” says Ignatius, “caring not for the widow, the orphan or the afflicted, neither for those who are in bonds nor for those who are released from bonds, neither for the hungry nor the thirsty.” That a religion which banished or neglected love should call itself Christian or claim affinity with Christianity excites St. John’s hottest indignation; against it he lifts up his supreme truth, God is love, with its immediate consequence that to be without love is to be without capacity for knowing God (4 7.8).”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Ep*, 14:1-2)<sup>56</sup>

해석학은 본문을 주석하는 것을 넘어, 읽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기까지 이차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sup>57</sup>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이 가치를 발하는 것은 그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신학적 요소를 말씀의 근거로 제시하고 적용한다는 것에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물의 기초’에 적용한다. 건물은 기초를 바탕으로 그 위에 세워진다.<sup>58</sup> 신앙을 견인하지 못하는 신학은 종이에 그려져 벽에 붙여진 호랑이와 같다. 이그나티우스는 확신의 신앙으로 견인할 때 이것을 단순히 사람의 지성에 호소하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에 바탕으로 두고 믿음의 확신을 이끌어내며,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하여 견인한다. 그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는 그 나무의 결실이다. 열매는 적용에 따른 모습이다.

### 3.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과 상대를 돌아보게 하는 적용의 관점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순교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던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말미에서 두 가지를 고백한다. “나는 그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만삭이 되지 못한 자입니다.”<sup>59</sup>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다른 사도와 비교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겸손의 자리에 내려놓은 방식을 취한 것을 인용한 부분이다. 이그나티우스가 자신을 다른 감독들에 비취 자신의 부족함

<sup>56</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4:1-2, 91-92

<sup>57</sup> Thiselton,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19.

<sup>58</sup> Thiselton, *First Corinthians: A Shorter Exegetical and Pastoral Commentary*, 125-130.

<sup>59</sup> Ignatius, “To the Romans,” 9:2, 106; H. D. M. Spence-Jones, *The Early Christians in Rome* (New York: John Lane Company, 1911), 9.

을 설명할 때 적용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는 다른 감독들에 비해 자신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속사도 교부였다.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다.<sup>60</sup> 어떤 감독들보다 권위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처럼, 자신을 그리스도의 거울에 비춰 각 교회의 감독에 대한 권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서신을 열람하는 성도들 또한 감독들을 개인의 자격으로 보지 말도록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자란 사실을 바라보도록 적용한다.<sup>61</sup>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감독의 권위를 비취보게 한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할 것을 권면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견인하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시리아의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내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목자로서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돌보아주실 겁니다. 그분과 여러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한 일원이라고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들(감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로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에 의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나는 가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Rom, 9:1-2)<sup>62</sup>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과 상대를 돌아보게 하는 이그나티우스의 적용의 관점은 고린도전서를 상기시킨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sup>60</sup> Adalbert Hamman,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London: SCM Press LTD, 1993), 9, 16; Eusebius Pamphil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trans. C. F. Cruse (Oregon: Watchmaker Publishing, 2011), 3:36, 109; 조윤희,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68 (2020): 227-230.

<sup>61</su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1: Apostolic Christianity. A.D. 1-100*, 494.

<sup>62</sup> Ignatius, “To the Romans,” 9:1-2, 106.

문제,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가를 자랑삼는 파벌의 문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어떤 은사가 더 큰지 논쟁을 일으켰던 교회의 대표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한다.(참고, 고전 1:1) 그리고 파벌의 문제, 은사의 문제 등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요소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며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 이런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8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취내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한다.

크리스토프 슈텐슈케(Christoph Stenschke, 1966-현재)에 따르면 신앙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그 모습이 부각된다.<sup>63</sup> 이그나티우스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내며,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을 신앙의 겸손과 바른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교회 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일치’와 ‘연합’의 모습을 함께 세워간다. 그는 한 명의 감독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권면할 때, ‘조직 우선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과 신앙에 따른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이단들을 경계하고, 구별해내도록 한다.<sup>64</sup> 그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런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 비취내고 있다.

나쁜 목초지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그것을 심지 않으셨기

<sup>63</sup> Christoph Stenschke, “Contested domains in the conflicts between the early Christian mission and Diaspora Judaism according to the Book of Acts,” in *Reconceiving Religious Conflict*, ed. Wendy Mayer and Chris L. de Wet (Routledge: New York, 2018), 139-141.

<sup>64</sup> Karl Suso Frank,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하성수 역, 『고대 교회사 개론』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228; Philip Schaff, ed. “Papal Infallibility Explained, and Tested,”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 1: The History of the Creeds*, (New York: Harper Brothers, 1919), 174.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경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분파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가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감독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교회의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Phil*, 3:1-2)<sup>65</sup>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제1-6장,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제2-7장, 제13장, 제15장, 「트랄레스 인들에게」 제1-3장, 제7장, 제12장, 「로마 인들에게」 제9장,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제1장, 제3장, 제7-10장, 「서머나 인들에게」 제8장, 제9장, 제12장, 그리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에게」 보낸 서신에서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그는 한 명의 감독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단과 교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가 안녕하도록 지도한다.<sup>66</sup> 그리고 세워진 감독의 권위를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보도록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과 당사자를 돌아보게 하는 이그나티우스의 적용의 관점은 인간의 불완전성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의 소지를 막아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한다.

<sup>65</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3:1-2, 108.

<sup>66</sup>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송인설 역, 『기독교회사』 (파주시: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16), 63.

## IV. 교회를 지켜낼 교리(Doctrine)를 증거하는 해석학적 접근

### 1. 분열을 획책하는 이단의 근본을 알게 하는 해석학적 접근

초대교회가 아직 교리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sup>67</sup> 율법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에비온주의의 유대적 이단과 플라톤적 사상을 가미한 가현설을 앞세운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적 접근이 교회를 분열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의 중심에는 대속의 완성을 이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 한편에서는 율법의 준수를 또 다른 편에서는 지식을 통한 영의 구원을 앞세운 교리로 교회를 갈등의 구조 속에 빠뜨린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 이단들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케빈 밴후저(Kevin J. Vanhoozer, 1957-현재)는 성경해석에 대해 논하면서 교리의 중요성과 제자도의 한 형식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성경해석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타낸다.<sup>68</sup> 이단의 근본적 오류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데서 나온 결과다.<sup>69</sup> 이단의 교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획책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뿐이다.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5장(한번)과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2장, 제3장, 제7장, 제8장(모두 다섯 번)에서, 그리고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8장(한번)에서 ‘분열(μερισμός)’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며 이단에 대해

<sup>67</sup> Gijsbert Van den Brink & C. Van der Kooi, *Christian Dogmatics: An Introduction* (Michigan: Wm. B. Eerdmans, 2017), 90.

<sup>68</sup> Kevin J. Vanhoozer, *Hearers and Doers: A Pastor's Guide to Making Disciples through Scripture and Doctrine*, 박세혁 역, 『들음과 행함』 (서울: 복 있는 사람, 2020), 20, 112.

<sup>69</sup> Beeke and Jones, *A Puritan Theology*, 42.

설명한다.<sup>70</sup> 이들은 하나님을 거만하게 저항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다.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단의 교리를 앞세운 분열자들에 의해 고통받고 있었다. 이그나티우스는 ‘분열’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이나 사용하며 빌라델피아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목자되는 감독을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이단의 거짓된 교리 가운데 빠져들면 그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해석학적으로 접근하며 알린다.

여러분은 진리의 빛의 자녀들이므로 분파와 그릇된 교리를 피해야 합니다. 목자 있는 곳에서 양처럼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사악한 쾌락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경주를 하는 자들을 사로잡는 가면을 쓴 이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연합 앞에서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Phil*, 2:1-2)<sup>71</sup> 나쁜 목초지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그것을 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경작하지 않으십니다. ...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감독의 편에서 있습니다. ... 나의 형제들이여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분파자와 결합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입니다.(*Phil*, 3:1-3)<sup>72</sup>

이그나티우스는 이단의 근본적 모순을 지적할 때 성육신에 대한 교리와 함께 그리스도론과 십자가, 부활에 대한 교리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sup>73</sup>

<sup>70</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5:3, 89; “To the Philadelphians,” 2:1; 3:1, 7:2, 8:1, 108-110; “To the Smyrnaeans,” 8:1, 115.

<sup>71</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2:1-2, 108.

<sup>72</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3:1-3, 108.

<sup>73</sup> David K. Bernard, *A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I* (Hazelwood: Word Aflame Press, 1995), 25-27: “Ignatius was particularly fond of calling Jesus Christ ‘our God,’ and Polycarp heartily endorsed the epistles of Ignatius.”; Philip Schaff, ed. “Ante-Nicene and Nicene Rules of Faith and Baptismal Creeds,”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II: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New York: Harper Brothers, 1919), 11; 조윤희,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248, 261.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1장에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동정녀를 통한 탄생’,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교리를 마태복음 3장 15절과 로마서 1장 3절, 에베소서 2장 16절 등의 말씀을 풀어서 접근한다.<sup>74</sup>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사도서에 입각한 말씀으로 공의를 세우며, 해석학적 접근을 이룬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단의 거짓된 교리의 근본을 알게 한다. 「서머나 인들에게」 제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사를 인정하지 않는 가현설의 교리에 대해 무지로부터 일어난 교리라며 반박한다.<sup>75</sup>

거짓을 앞세운 이단들의 교리가 분열을 낳는 역할을 한다면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론의 교리는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뤄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보편교회(καθολικὴ ἐκκλησία)’가 있다”<sup>76</sup>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보편’이라는 단어를 통해 거짓된 교리와 구별되는 ‘정통 교회’를 해석한다.<sup>77</sup> 교회는 집단을 형성하는 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보편교회’의 모습이다. 이그나티우스는 ‘보편교회’라는 단어를 통해 이런 교리적 측면까지 해석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 따라서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없는 교리는 ‘교회 밖’에 속한 것으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5장에서 밝힌바 있다.<sup>78</sup> 분열을 획책하는 이단들의 교리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리를

<sup>74</sup> Ignatius, “To the Smyrnaeans,” 1:1-2, 112-113.

<sup>75</sup> Ignatius, “To the Smyrnaeans,” 5:1-3, 114.

<sup>76</sup> Ignatius, “To the Smyrnaeans,” 8:2, 115.

<sup>77</sup> Edmund Clowney, *The Church*, 황영철 역, 『교회』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6), 105; 우병훈, “츠빙글리의 성화론: 그의 신론, 교회론, 국가론과 연결하여,” 『한국개혁신학』 64 (2019): 166-167: “거짓된 교회는 성경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성경 위에 군림하고, 그 결과 성령을 상실한다. 거짓된 교회는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보편교회(ecclesia catholica)” 즉 “그리스도의 신부(die Braut Christi)”가 아니다”

<sup>78</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5:2, 89

바르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교리를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2. 사도들의 전통에 호소하는 해석학적 접근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리적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위 제자들이 가르쳤다는 ‘어록들’을 등장시켜 자신들의 해석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 교회는 이단들의 거짓된 교리를 반박할만한 완성된 정경의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는 바른 교리를 수립하고, 수호하기 위해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전통의 권위에 호소하게 된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교회 내에 ‘전통적 해석’의 원리가 등장한다.<sup>79</sup> 이그나티우스는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은 ‘사도적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인사말에서 밝힌다.<sup>80</sup> 이런 그의 서신은 인사말에서 바울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서신을 구성할 때 인사말에서 전략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을 담아 간다.<sup>81</sup> 예를 들어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교회를 향해 서신을 기록할 때는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사말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고전 1:1) ...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 유폐되고 있는 가현설의 거짓된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전개하기 위해 바울의 방식을 사용한다. 그는 서신의

<sup>79</sup> Klein, Blomberg, Hubbard Jr,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33; P. Bernhard Schmid, *Grundlinien der Patrologie*, 정기환 역, 『교부학 개론』 (서울: 컨콜디아사, 2003), 29; James Orr,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 (Chicago: The Howard-Severance, 1915), 3104.

<sup>80</sup>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Ante-Nicene Christianity*. A.D. 100-325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48.

<sup>81</sup> Jeffrey A. D. Weima, *Paul the Ancient Letter Writer: An Introduction to Epistolary Analysis* (Michigan: Baker Academic, 2016), 11-12.

인사말에서 ‘하나님에 의한 선택으로’ 성도들은 참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교리적 반증을 제시하고, 해석하면서 본론과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sup>82</sup>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인사말에서는 ‘연합’을 강조한다. 그리고 본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과 연합을 이루도록 한다. 이런 특징은 그의 일곱 서신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프란시스 투레틴(Francis Turretin, 1623-1687)은 『변증신학 강요』에서 두 번째 주제로 ‘성경’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그는 “교부들은 자신들의 글을 권위적이거나 자신들의 주장이 반드시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sup>83</sup>라는 사실을 밝힌다. 그 이유는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교부들은 선지자 또는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sup>84</sup> 이런 맥을 함께 하고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이단들의 거짓된 교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는 순교, 그리고 교회를 향해 권면할 때 ‘사도적’ 방식을 선호했던 속사도 교부였다.

아시아의 트랄레스에 있는 모든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자”인 이그나티우스가 사도적 방식으로 진심 어린 인사를 드리고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소중한 자들이며,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그분의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인해 온전히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Tral, Text*)<sup>85</sup>

<sup>82</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87-88; “To the Trallians,” 98; 김지훈, “구원자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겸손: 츠빙글리의 섭리론과 예정론,” 『한국개혁신학』 63 (2019): 90.

<sup>83</sup> Francis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1, trans. George Musgrave Giger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92), 164.

<sup>84</sup>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1, 163.

<sup>85</sup> Ignatius, “To the Trallians,” 98.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된 교사들의 악한 선동을 교회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할 때 자신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상기시킨다.(참고 고전 2:2) 이그나티우스는 가현설을 비롯한 거짓된 교리가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을 때, 사도의 전통에 호소하며 바른 교리 가운데 교회가 서도록 한다. 이때 ‘교차적 참조(cross-reference)’ 방식을 통해 전체를 해석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불신자들이 걸림돌로 여기는 십자가를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참고 고전 1:18, 23)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에 호소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고전 1:20)<sup>86</sup>

특히 교부들이 사용했던 사도들의 전통에 호소하는 방식 가운데 ‘이신칭의’와 ‘화해론’과 ‘십자가’에 대한 교리적 제시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주로 의지하고 있었으며, ‘새 생명’과 관련해서는 요한복음에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그나티우스 또한 이런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해석학적 토대는 마르키온을 비롯한 영지주의 이단과 신학적 논쟁을 펼쳐 나갈 때 이레나이우스(Irenaeus, 130-202)가 교리적으로 호소했던 중심이기도 했다.

그래서 사도적 전통은 교회에 보존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기록한 사도들의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증거를 살펴봅시다. 그들은 그 문서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그분 안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 역시 동정녀로부터의 탄생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예언했을 때 “진리가 땅에서 솟아났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합니다. 사도들은 진리의 제자로서 거짓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sup>87</sup>

<sup>86</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8:1, 92.

<sup>87</sup> Irenaeus, “The faith in scripture and tradition,”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376.

이그나티우스는 사도들의 전통에 호소하는 해석학적 접근으로 교리적 갈등에 놓여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전통교리를 지켜내도록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낸다. 뿐만 아니라 교리와 신앙에 있어서 일치와 연합을 이뤄간다. 이런 모습은 그가 「폴리잡에게」 보내는 서신에도 나타난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6절, 디모테후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경기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절과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독으로서 달음질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기자’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당신의 경주를 서두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권할 것을 촉구합니다.”<sup>88</sup> “완벽한 모습을 지닌 경기자처럼 모든 사람의 ‘병을 짊어지십시오(Bear the disease, νόσους βάρταζε, 참고, 마 8:17).”<sup>89</sup> “하나님의 경기자로서 절제하십시오. 당신이 잘 알다시피 상은 불멸과 영생입니다.”<sup>90</sup>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t of Alexandria, 150-215)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160~220)와 같은 교부들은 고린도전서 9장의 주석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기’에 비유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을 앞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악의 권능과 싸우는 것에 있다며 경기자의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sup>91</sup> 이그나티우스가 폴리잡(Polycarp, 69-155)에게 권면할 때였다. 사도서를 통해 호소하듯이 ‘하나님의 경기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도록 한다. 그리고 폴리잡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런 서신의 내용들을 다른 교회들에게도 통용하도록 권한다. 이와 같이 이그나티

<sup>88</sup> Ignatius, “To Polycarp,” 1:2, 118.

<sup>89</sup> Ignatius, “To Polycarp,” 1:3, 118.

<sup>90</sup> Ignatius, “To Polycarp,” 2:3, 118.

<sup>91</sup> Thomas C. Oden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New Testament IX(1-2 Corinthians)*, 안봉환 역, 『교부들의 성경 주해 신약성경 IX: 코린토 1-2서』(왜관: 분도출판사, 2016), 162-163.

우스는 일치와 연합을 이뤄 갈 때 사도들의 전통에 호소하는 해석학적 접근을 이룬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 그에 대해 답을 주는 방식을 취한다.<sup>92</sup>

### 3. 예언의 성취와 대속과 은혜의 교리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거짓된 이단의 교리는 구원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의 수난사에 따른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필연적 사건임을 교리적으로 제시한다.<sup>93</sup>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필연적 사건인 것 또한 증거한다. 이런 부분들을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교리’를 통해 해석학적으로 설명한다.<sup>94</sup>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으로 비유된다. 성경의 저자들은 어떤 특정한 단어의 사용을 통해 구체적인 사상을 전한다.<sup>95</sup> ‘양의 문’은 구원과 관련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소를 맡은 ‘대제사장’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문’에 비유한다.<sup>96</sup> 그리고 대속을 이룬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교리적으로 설명한다.

<sup>92</sup> Ignatius, “To Polycarp,” 2:3, 118; 3:1, 118; 8:1, 120.

<sup>93</sup> 조윤희,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153.

<sup>94</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9:1-1; 11:1, 110-111.

<sup>95</sup>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103.

<sup>96</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9:1, 110.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사랑에 뿌리가 내린 채 확고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분에 의해 모든 의가 이뤄지도록 그분이 실제로 인간적인 면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본디오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에 의해 육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신의 부활에 의하여 유대인 또는 이방인을 막론하고 그의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을 교회의 한 지체로 영원히 불러 모으기 위한 표지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일부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수난은 거짓이 아닙니다. 가짜는 바로 그들입니다!(*Smy*, 1:1-2:1)<sup>97</sup>

이그나티우스는 아담의 죄와 그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 가운데 놓여진 사실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영생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전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가르친다.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는 자신의 『개혁교의학』에서 ‘성경의 신적 영감’을 다루면서 “성경은 신학의 기초원리며, 신학적으로 읽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sup>98</sup>라고 역설한다. 교리를 제시하는 ‘신학적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한다.<sup>99</sup> 이그나티우스는 성자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사실과

<sup>97</sup> Ignatius, “To the Smyrnaeans,” 1:1-2:1, 112-113.

<sup>98</sup>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1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444.

<sup>99</sup>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134: “The name “Theological Interpretation” deserves the preference, as expressive, at once, of the fact that its necessity follows from the divine authorship of the Bible, and of the equally important consideration that, in the last analysis, God is the proper Interpreter of His Word.”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완성을 이루어갈 때,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예언의 성취와 연결하여 해석학적 접근을 이룬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제시한다.<sup>100</sup> 이런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할 때 그는 사도들의 서신으로부터 그 근거와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sup>101</sup>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과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인사말에서 ‘하나님에 의한 선택’을 말한다.<sup>102</sup> 그리고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과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자라는 것을 말한다.<sup>103</sup> 이를 통해 구원에 따른 교리가 이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논한다. 칼빈은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택함 받았음이 증명된 자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은 여기지 않는다”<sup>104</sup>는 교리를 말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 삼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이 예언의 성취였다면 이 모든 것의 발단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출발은 일어나고 성취된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됨을 말하는 이그나티우스의 해석학적 접근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만이 아니라 구별된 자의 자리까지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로서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한 참된 고통”<sup>105</sup>이라는 것을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깨닫게 한다.

<sup>100</sup> Schmid, *Grundlinien der Patrologie*, 66-67; J. F. Bethune-Baker, *An Introduction to the Early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Methuen: Adamant Media Corporation, 1903), 80.

<sup>101</sup> Ignatius, “To the Trallians,” 98.

<sup>102</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87-88; “To the Trallians,” 98.

<sup>103</sup> Ignatius, “To the Romans,” 103; “To the Smyrnaeans,” 9:2, 115.

<sup>104</sup> John Calvin, *Ioannis Calvini Commentarii*, 박문재 역, 『칼빈주석: 로마서』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3), 306.

<sup>105</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87-88.

## V. 나가면서

2세기 속사도 교부들의 시대는 고난과 갈등이 연속하는 시대였다. 교회 안은 이단들의 문제로 야기된 교리적 갈등이 싹트고 있었고, 외부로는 로마로부터 가해져 오는 공포에 따른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때 교회는 교리적 기둥을 세우는 측면에서 기독교인이 성경의 중심적 해석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속사도 교부 시대의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는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연구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서신에 대한 분석을 해석학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 시대 신학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며, 신앙에 대한 중요한 장르를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교회를 향한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그의 서신은 사도서를 풀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서신은 해석학적 측면에서 세 가지 점이 부각된다. 첫 번째는 은유적 방식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견인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적용의 관점이며, 세 번째는 교리를 해석학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사도서와 예언서이며, 사도서 가운데서도 바울서신이 중심적 구조를 형성한다.

특히 해석학적 측면에서 시대를 연구할 때 연구자들은 사도들을 다루다가 2세기 말의 이레나이우스로 뛰어넘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다. 영지주의자들의 논쟁을 신학적으로 조명했던 사건을 다룰 때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 이레나이우스의 신학적 중심이 세워지기까지 2세기 초의 공백이 생긴다.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에 대한 연구는 여기에 대해 일정 부분 답을 주고 있다.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은 해석학적 측면에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감정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 사도서를 풀어 변증하는 방식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그나티우스 서신의 중심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타나는 바울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서신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다.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이그나티우스가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어떤 유익을 주고 있었는지 발견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연구는 과거와 현대를 연결하는 교차점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현대 교회를 향해 세 가지 측면에 유익함을 준다.

첫 번째는 분파주의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별력을 가지도록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분파주의자들과 구분을 증거할 때 은유적인 비유법을 활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단과 같은 분파주의자들이 어떤 유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본질을 깨닫게 한다. 영적 흑암 시대 앞에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영적 긴장감마저 무뎠던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매스미디어와 유튜브 등을 통해 분파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장밋빛의 독배를 마시기까지 한다. 이런 시대 앞에 교회는 영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세워진 사역자들은 영적으로 성도들을 일깨워 분별력을 가지도록 사역에 사력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직시하는 신앙관을 가지게 한다. 신성과

인성의 본성에 따른 성육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죄 사함에 따른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이르는 믿음의 신앙관에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신앙은 진리로부터 나오기에 타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는 ‘가르침’과 ‘선포’를 통해 증거된다.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이그나티우스의 신앙관은 이 시대 위에 교회와 사역자들이 세워진 이유와 사역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한다.

세 번째는 사도들의 전통을 통해 교리적 이해를 돕게 한다. 사도의 전통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 없어야 할 중심적 교리다. 교리가 신학적 발전을 꾀할 때도 철학과 현대적 사상이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적 용례(用例)가 철학과 인간적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앞세우거나 포스트모더니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신학은 이런 모습을 담아가는 양상들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은 이런 시대 앞에 사도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교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대, 이그나티우스가 진리에 대한 전통을 사도로부터 제시하는 것은 이후 교회가 어떤 전통에 호소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의 모본(模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서신은 속사도 교부로서 변증에 대한 근본적 공리(公理)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Hermeneutic Approach and Understanding  
of Ignatius' Epistles  
: Focusing on His Seven Epistles to the Church

Jo, YounHo

Senior Pastor, Gerizim Church  
Systematic Theology

Ignatius, who was a Apostolic Father, is theologically given the word "first" in several ways. He was the first among the Fathers to use the terms 'unity', 'union' and 'Catholic Church'. He is the first Father of the church to use the idiom. And he was the first theologian to metaphorically express that there is no salvation outside the church. Studying these seven epistles of Ignatius in a hermeneutic way is beneficial in two ways. The first is to know about the time and situation. The second is to know about the center of the faith and theology of that era. In particular, if we look into the seven epistles of Ignatius through a hermeneutic approa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 and content of his letters are found. In terms of form, it follows the Apostles, and in the content, 'Christ' and 'Cross' are set at the center. The content is developed through a 'metaphorical method', a 'application method' and a 'doctrinal approach'.

Heretics, who have plunged the church into 'schism', claim

the validity of false doctrines by presenting the disciples' 'words'. In response, Ignatius appeals to the tradition of the apostles to defend the truth and preserve the faith. The tradition of the apostles is established as the Orthodoxy of the Church. In this case, the 'cross-reference' method using the idiom is sometimes used as a dialectical tool. His epistles, centered on the Apostles including 1 Corinthian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cuing the church's faith and theology from conflicts and crises. A study that approaches Ignatius's epistles hermeneutically serves as a 'stepping stone' that illuminates his faith and theology more deeply. And it gives three benefits to the modern church. The first is to make sectarians discernable to know who they are. The second is to have a view of faith that faces the truth. Third, it aids in doctrinal understanding through the tradition of the apostles.

**Keywords:** Christ, Cross, Metaphor, Application, Hermeneutic, Ignatius

## 〈참고문헌〉

- 김지훈. “구원자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겸손: 츠빙글리의 섭리론과 예정론.” 『한국개혁신학』 63 (2019): 67-103.
- 백충현. “다(多)문화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삼위일체적 다(多)문화적 신학적 인간론의 모색.” 『한국개혁신학』 64 (2019): 227-253.
- 우병훈. “츠빙글리의 성화론: 그의 신론, 교회론, 국가론과 연결하여.” 『한국개혁신학』 64 (2019): 148-192.
- 조윤호.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68 (2020): 218-268.
- \_\_\_\_\_.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0 (2021): 124-167.
- Bartholomew, Craig G. *Introducing Biblical Hermeneutic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Hearing God in Scripture*. Michigan: Baker Academic, 2015.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1*.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Beeke, Joel R. and Jones, Mark. *A Puritan Theology*. 김귀탁 역.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 Berardino, Angelo Di & Oden, Thomas C. & Elowsky, Joel C. & Hoover, James. Eds. *Encyclopedia of Ancient Christianity: Produced by the Institutum Patristicum Augustinianum*.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14.
- Berkhof, Louis.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Michigan: Baker Book House, 1969.
- Bernard, David K. *A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1*. Hazelwood: Word Aflame Press, 1995.
- Bethune-Baker, J. F. *An Introduction to the Early History of Christian*

- Doctrine*. Methuen: Adamant Media Corporation, 1903.
- Botha, Pieter J. J. “Blindness in early Christianity: Tracking the fundamentals of religious conflict.” in *Reconceiving Religious Conflict*. Eds. Wendy Mayer and Chris L. de Wet. Routledge: New York, 2018.
- Brink, Gijsbert Van den & Kooi, C. Van der. *Christian Dogmatics: An Introduction*. Michigan: Wm. B. Eerdmans, 2017.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Ioannis Calvini Commentarii*. 박문재 역. 『칼빈주석: 로마서』. 교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3.
- Clowney, Edmund. *The Church*. 황영철 역. 『교회』.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6.
- Donahue, Paul J. “Jewish Christianity in the Letters of Ignatius of Antioch.” *Vigiliae Christianae* 32 (1978): 81-93.
- Engels, David and Nuffelen, Peter Van. “Religion and Competition in Antiquity.” In *Collection Latomus* 343 (2014): 9-44.
- Esler, Philip F. Ed. *The Early Christian World I-II*. New York: Routledge, 2002.
- Evans, Gillian R. & McGrath, Alister E. & Galloway, Allan D. *The Science of Theology: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서영일, 『기독교 사상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Frank, Karl Suso.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하성수 역. 『고대 교회사 개론』.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Michigan: Inter-Varsity Press, 2016.
- Hamman, Adalbert.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London: SCM Press LTD, 1993.
- Hosang, F. J. Elizabeth Boddens. “Attraction and Hatred. Relations

- between Jews and Christians in the Early Church.” In *Violence in Ancient Christianity*. Ed. Albert C. Geljon & Riemer Roukema. Brill: Leiden, 2014.
- Ignatius. “To the Ephes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Magnes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Trall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Rom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Philadelph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Smyrnae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Polycarp.”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Irenaeus. “The Faith in Scripture and Tradition.”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Jeremias, Joachim. *The Parables of Jesus*. 허혁 역. 『예수의 비유』. 왜관: 분도출판사, 1974.
- Kelly, J. N. D. *The Early Christian Doctrines*. 박희석 역. 『고대 기독교교리사』.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Klein, William W & Blomberg, Craig L & Hubbard Jr, Robert L.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allas: Word Publishing,

1993.

- Louth, Andrew.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1. Ed. Thomas C. Oden. Illinois: IVP, 2001.
- Lubac, Henri de. *La mystique et l'anthropologie dans le christianisme*. 광진상 역. 『그리스도교 신비사상과 인간』. 화성시: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6.
- Mayer, Wendy. “Re-Theorizing Religious Conflict: Early Christianity to late antiquity and beyond.” In *Reconceiving Religious Conflict*. Ed. Wendy Mayer and Chris L. de Wet. Routledge: New York, 2018.
- Oden, Thomas C.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New Testament IX(1-2 Corinthians)*. 안봉환 역. 『교부들의 성경 주해 신약성경 IX: 코린토 1·2서』. 왜관: 분도출판사, 2016.
- Orr, James.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5 Vols. Chicago: The Howard-Severance, 1915.
- Pamphilus,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Trans. C. F. Cruse. Oregon: Watchmaker Publishing, 2011.
- Pitre, Brant. *Jesus and the Jewish Roots of the Eucharist\_ Unlocking the Secrets of the Last Supper*. New York: Brant Pitre, 2011.
- Richardson, Cyril. C. “The Letters of Ignatius, Bishop of Antioch.” In *Early Christian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1: Apostolic Christianity. A.D. 1-100*.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9.
- \_\_\_\_\_. Ed. “Papal Infallibility Explained, and Tested.”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1: The History of the Creeds*. New York: Harper Brothers, 1919.
- \_\_\_\_\_. Ed. “Ante-Nicene and Nicene Rules of Faith and Baptismal Creeds.”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II: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 New York: Harper Brothers, 1919.
- \_\_\_\_\_.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Ante-Nicene Christianity. AD 100-325*.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 \_\_\_\_\_.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II*. Michigan: William B. Eerdmans, 1956.
- Schmid, P. Bernhard. *Grundlinien der Partrologie*. 정기환 역. 『교부학 개론』. 서울: 컨콜디아사, 2003.
- Spence-Jones, H. D. M. *The Early Christians in Rome*. New York: John Lane Company, 1911.
- Stenschke, Christoph. “Contested Domains in the Conflicts between the Early Christian Mission and Diaspora Judaism according to the Book of Acts.” In *Reconceiving Religious Conflict*. Eds. Wendy Mayer and Chris L. de Wet. Routledge: New York, 2018.
- Thiselton, Anthony C. *First Corinthians: A Shorter Exegetical and Pastoral Commentary*. 권연경 역. 『고린도전서』. 서울: SFC, 2011.
- \_\_\_\_\_.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김동규 역. 『성경해석학 개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 \_\_\_\_\_. *The Two Horizons*. 박태규 역. 『두 지평: 성경해석과 철학적 해석학』.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 Turretin, Francis.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1*. Trans. George Musgrave Giger.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92.
- Vanhoozer, Kevin J. *Hearers and Doers: A Pastor's Guide to Making Disciples through Scripture and Doctrine*. 박세혁 역. 『들음과 행함』. 서울: 복 있는 사람, 2020.
-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송인설 역. 『기독교회사』. 과주시: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16.
- Warfield, Benjamin B. *Biblical Doctrines*. Wiltshire: Banner of Truth

Trust, 2002.

Weima, Jeffrey A. D. *Paul the Ancient Letter Writer: An Introduction to Epistolary Analysis*. Michigan: Baker Academic, 2016.

Weinandy, Thomas G. *Athanasius: A Theological Introduction*.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8.